

베트남 2024: 정치 격랑 속 순항한 경제*

김용균** · 명재석***

국문초록

2024년 베트남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구설에 올랐었다. 단 6개월 만에 당 총비서를 비롯한 정치국 직위 1/3 정도가 꺾임과 보궐을 거쳤다. 권력투쟁이 격화하며 도이머이 이래 정치적 관행과 금기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당장 정치 불안정과 정책 급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우려는 과장된 것이었다. 다른 분야에서 베트남은 기존의 관행을 유지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실리 위주의 대나무 외교를 계속하며 주요 중견국과 양자관계를 격상하고 몇몇 주변 강대국에서는 양허를 받아냈다. 경제 측면에서 수출과 투자의 호조를 바탕으로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외교와 경제에서 보여준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2024년 휩쓴 정치적 변화의 종착점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다보기 어렵다. 2025년 여름에는 제14차 당 대회 골격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럽 총비서의 '제도개혁' 성패가 드러난다. 그때쯤이면 먼지가 가라앉고 포스트 롱 시대의 설계도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날 정치경제적 배열이 베트남의 다음 6년을 규정할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 2024, 정치 격변, 대나무 외교, 경제 성장, 제도 개혁

* 본 연구는 2024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0448A-20230011).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 센터장, yongkyunkim@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 연구원, nyamsup@snu.ac.kr

I. 서론

2024년 상반기 베트남은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 7월 응우옌푸쑹(Nguyễn Phú Trọng) 총비서 서거에 이르기까지 다섯 명의 정치국원이 사임했다. 연쇄 보궐 과정에서 또람(Tô Lâm) 전 공안부 장관이 총비서로 올라섰고, 일시적으로는 국가주석까지 겸직했었다. 전례 없는 고위직 연쇄 인사 개편, 그 과정에서 조금씩 노출된 권력투쟁의 흔적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적 연속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였다. 현시점에서 보자면 기우였다.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경제의 관리는 준수했다.

외교적으로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 기조를 이어갔다. 주요 중견국과 관계를 격상하고, 외교적 관례를 지켜가며 주요 강대국 및 전통 우방국과 접촉을 이어갔다. 베트남은 올해 처음으로 외교 문제를 당내에서 국방·안보와 동격으로 다루기로 했다. 향후 신 지도부는 외교 사안을 국방·안보만큼 신중히 다룰 것이다. 따라서 외교 노선은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투자의 호조로 고도성장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연간 GDP 성장률은 7.09%다(Huòng 2025). 이로써 베트남은 2024년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조기에 선언할 수 있었다. 수출의 호조는 트럼프(대통령)의 당선을 앞둔 미국 업계의 선행주문이 견인했다. 수출액 상위 품목의 변동은 베트남이 거둔 제조업 고도화의 성과를 웅변한다. 해외직접투자의 호조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자의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다. 물론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신 지도부가 추진하는 제도개혁이 성공한다면 문제 풀이의 실마리 정도는 마련하게 될 것이다.

2025년 베트남의 향배는, 럽 총비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럽 총비서가 주도할 정책 노선이 무엇이냐에 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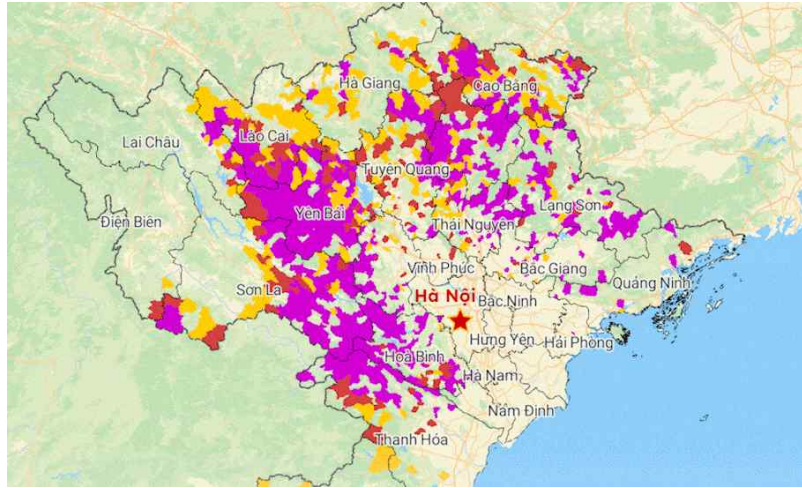
있다. 가능한 결과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할지 예측이 어렵다. 적어도 2026년 당대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이른바 ‘제도 혁명’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여름은 넘겨야 한다. 그때 드러나는 포스트 쑹 체제의 성격이 베트남의 다음 5년을 규정할 것이다.

이 글은 베트남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2024년을 회고적으로 평가하고 2025년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경제 세 분야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나 추세를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한다. 정치 분야의 핵심 추세는 정치국 인사 파동이였다. 인사 변동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세를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한다. 외교 분야에서는 일관된 전략이 거둔 성과와 향후 외교 노선과 관련하여 중대한 함축을 지닌 몇몇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높은 성과가 두드러진다. 안정된 경제 운용과 우호적 대외여건이 일조했다는 점을 살피는 한편, 성과 뒤에 남은 문제점도 일별한다.

II. 정치: 격랑이 그친 뒤 찾아온 평온,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의미

2024년 9월 7일 초대형 태풍 야기(Yagi)가 베트남 북부지방을 할퀴고 지나갔다. 폭탄을 맞은 것처럼, 도시 곳곳 가로수와 전신주, 주택 창문과 지붕, 건물 외벽이 강풍에 파괴되었고, 이어진 폭우에 저지대에선 농지와 축사가 침수되고 산지에선 여기저기 산사태가 일어났다. 사망자만 300명이 훌쩍 넘는 인명피해에 3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준 야기는 베트남에서 역대 최대의 피해를 남긴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이 목표보다 최소 0.15%p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야기가 남긴 경제적 피해 규모는 무척 컸다.

<그림 1> 태풍 야기 피해지역



출처: Chính 2024

하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서 베트남 국민은 단결했고, 단결한 베트남인은 강했다. 위기에 처한 이웃 시민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 구해내는 미담이 속속 전해졌다. 순간 초속 160미터의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게 다리를 건너던 한 오토바이를 그곳을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함께 바람막이 ‘차벽’을 형성해 무사히 건너도록 엄호하는 장면은 겁에 질리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슴에 몽클한 감동과 함께 베트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선사하고 용기를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이 전해졌고, 정부와 인민이 하나 되어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선 덕에 초토화되었던 곳들이 빠르게 원래 모습을 회복해갔다. 2024년 역대급 태풍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해 7.0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태풍 야기 내습 당시 오토바이를 보호하는 트럭 호송대



출처: Kim 2024

2024년 하반기엔 태풍 야기가 베트남을 강타했다면 상반기엔 야기 못지않은 슈퍼태풍급 돌풍이 베트남 정치권을 연달아 강타했다. 우선 3월 중순, 미리 들리던 혼한 풍문조차 없이 보반트영(Võ Văn Thưởng) 국가주석이 그야말로 돌연 사임했다. 2023년 초 사임한 응우옌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전 국가주석의 후임으로 국가주석직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이 더 컸다. 다시 한 달 뒤인 4월 중순엔 공산당 최고지도부 4인 중 한 명인 브영딘후에(Vương Đình Huệ) 국회의장의 보좌관이 긴급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더니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후에 국회의장의 사임이 결정되었다. 당서열 2위와 4위의 연이은 사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5월 중순 이번에는 당서열 5위인 쩡영티마이(Trương Thị Mai) 당중앙비서국 상임비서의 사임 소식이 전해졌다. 다시 2주 후 6월 초엔 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딘띠엔중(Đinh Tiến Dũng) 하노이시 당비서

가 옷을 벗었다.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정치국원 4명이 잇달아 실각한 것이다.

이미 연초에 실각했던 쩌뚜언아잉(Trần Tuấn Anh) 당중앙 경제위원장까지 합하면 2024년 상반기에만 무려 5명의 정치국원이 무더기로 쫓겨났다. 이로써 18명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던 제13기 정치국은 바로 전해인 2023년 초에 사임한 팜빈민(Phạm Bình Minh) 부총리와 폭 국가주석을 포함해 임기 3년 반 만에 전체의 40%에 달하는 7명의 정치국원이 실각하는 공산당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후 정치국원을 새로 충원해 13기 정치국은 다시 14~15인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지만, 2024년 상반기 베트남공산당의 최고 지도부에 몰아닥친 숙청 바람은 13기 정치국을 반쯤 뒤집어놨을 만큼 강력한 초대형 태풍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랐던지 7월 한여름 어느 평범한 금요일 오후 쯡 총비서의 서거가 공식 발표되었다.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를 뜬 8번째 13기 정치국원이었다.

쯡 전 총비서의 건강 악화설은 2023년 말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병세가 심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가 심지어 이미 사망했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다. 80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령인데다 2019년 남부 순방 길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력이 있는 터라 쯡 총비서의 건강 이슈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였다. 그동안 사망설만 해도 여러 차례 나돌다 사라지길 반복하곤 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 쯡 총비서의 공식 활동이 눈에 띄게 줄면서 건강 악화설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하노이를 국빈 방문한 날이 6월 20일이었는데, 이날 푸틴과 짧은 회담을 한 것이 쯡 전 총비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19일, 레주언(Lê Duẩn) 이후 가장 오랜 시간 공산당 일인자 자리를 지켰던 쯡 총비서가 레주언이 그랬듯 재임 중 사망했다. 이로써 2023년 말부터 나돌던 그의 건

강 악화설이 이번에는 사실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쑹 총비서의 사망과 그것이 확인해 준 최소 수개월 전부터 그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벌어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치 격랑의 수수께끼를 푸는 하나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그것은, 2023년 벽두에 발생한 국가주석과 두 명의 부총리 동시 실각 때와는 달리 이번 2024년 상반기 당서열 2위, 4위, 5위의 잇따른 실각은 건강 악화로 쑹 총비서의 권력 장악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일련의 숙청은 쑹 총비서가 주도적으로 지휘한 결과가 아님은 물론이고 사태와 내용을 정확히 보고받고 숙지한 상황에서 징계 결정을 승인하는 수동적 역할마저 온전한 정신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심지어는 자기 의사에 반함에도 그러한 결정을 막을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유례없는 당서열 2, 4, 5위 무더기 실각은 사실상 쑹비서의 사고 상태, 즉 사실상의 권력 공백 상황에서 벌어진 사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점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첫째, 현 임기를 끝으로 은퇴가 확실했던 폭 전 국가주석과 달리, 이번에 실각한 트영 전 국가주석과 후에 전 국회의장 두 사람은 쑹 전 총비서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후보였다는 점이다. 쑹 전 총비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기 당대회까지 자리를 보전했다면 이 둘 중 한 명이 다음 총비서가 됐을 확률이 대단히 높았다. 이들이 실각하기 전까지만 해도 둘 중 누가 될 것인지가 다음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였다. 서열 5위 마이 전 당중앙 비서국 상임비서 역시 쑹 총비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다. 쑹 전 총비서 2기(2016~2020년)에는 당중앙 대중동원위원장, 3기인 2021년부터는 조직위원장에 비서국 상임비서까지 당중앙 핵심 보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 셋의 연쇄 숙청에 쑹 총비서의 적극적 승인은 말할 것도

없고 소극적 목인이 있었다는 것조차 믿기 어렵다.

둘째, 이번 숙청은 통상 당대회 직전에 벌어지곤 하는 권력투쟁 양상과는 사뭇 달랐는데, 당대회를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어쩌면 너무 일찍 벌어졌다는 점과 숙청 대상에 대한 소문이 사전에 거의 나돌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숙청을 미리 기획한 측이 행동에 나설 모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전광석화와 같이 전격적으로 실행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트엉 전 국가주석의 사임은 3~4일 전까지도 세간에 아무런 소문도 나지 않았다. 그가 연루되었다고 나중에 알려진 폭선(Phúc Sơn) 그룹 사건이 처음 보도된 날이 2월 26일이었으나 이때만 해도 국가주석과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폭선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빈폭(Vĩnh Phúc)성 당비서와 인민위원장이 체포된 날이 3월 8일이었다. 그리고 1주일 후 국가주석의 사임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일주일 동안 무려 10년 전 쩡응아이(Quảng Ngãi)성 당비서 시절 폭선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까지 소급해 사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폭선 그룹 수사 자체가 트엉 전 국가주석의 제거를 최종목표로 사전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후에 전 국회의장도 비슷하다. 4월 15일 투언안(Thuận An) 그룹 사건 수사가 처음 공개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그것도 후에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중에 그의 측근이 전격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단 4일 만에 중앙위원회에서 국회의장의 사임이 결정되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사정당국이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 개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일사천리로 움직여 단박에 목표물을 떨어뜨리는 ‘사전 기획, 기동 타격’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란 아마도 사망이 임박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위중해진 쯡 총비서의 상태였을 것이다. 이때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을 텐데, 만일 이대로 총비서가 서거한다면 총비서 보궐 후임은 서열 2위 트엉 전 국가주석에

게 돌아가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차기 구도가 굳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정치 격랑의 승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트영 전 국가주석의 사임 후 보궐되어 서열 2위로 오른 럽 전公安部 장관이다. 쯙 전 총비서가 사망하자 럽은 8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 총비서로 선출되면서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겸직하게 된다. 이는 호치민 주석의 경우를 제외하면 베트남공산당 역사에서 1986년 레주언 총비서 사후 총비서를 6개월간 겸직한 쯩영친(Trương Chinh) 당시 국가주석의 경우, 그리고 2018년 쩌다이꽁(Trần Đại Quang) 국가주석 사후 2년여 국가주석을 겸직한 쯙 총비서의 경우, 단 두 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번 럽의 겸직은 10월 21일 국회가 르영꾸영(Luong Cuong) 장군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할 때까지 약 80일가량 지속되었다. 어쨌든 3월까지만 해도 서열상 한참 후 순위에 머물러있던 럽 당시公安部 장관은 당권 경쟁자들을 일거에 제압하고 순식간에 서열 1위 자리를 꿰치는 신공을 선보였다. 그가 2026년 초에 열릴 다음 당대회에서 차기 총비서로 선출될 것이라는 점은 현재로서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만큼 럽 총비서의 권력 장악은 이미 완료형에 가깝다. 우선 럽은公安部 장관이자 당중앙 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쯙 전 총비서 2기부터 본격화된 부패와의 전쟁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아왔다. 그렇지 않아도 베트남 최강 권력기관인公安部를 한층 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만든 지난 8년의 반부패 사정국면을 지나면서 그러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럽 장관이 손에 쥐게 된 권력은 실로 막강한 것이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구든 날릴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연쇄 숙청이 여실히 입증하였다.

국가주석과 총비서 권력을 잡은 럽은 자신의 측근들을 당내 감찰

및 수사 기구의 핵심에 포진시켰다. 먼저 공안부 장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또렷은 국가주석직을 승계받기 전에 자신의 최측근이자 흥옌(Hung Yên)성 동향 후배인 르엉땀짱(Luong Tam Quang) 공안부 차관을 후임 장관에 앉히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나서야 공안부 장관을 내려놓고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총비서로 선출된 후에도 역시 흥옌성 출신 공안부 차관 응우옌주이응옥(Nguyễn Duy Ngọc)을 당 재정 사무를 담당하는 당중앙 사무국장에, 그리고 또 다른 흥옌성 출신 중앙위원인 응우옌하이닌(Nguyễn Hải Ninh)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그런데 이 세 직책 모두 반부패위원회(Ban Chi đạo Trung ương về phòng, chống tham nhũng, tiêu cực Đảng Cộng sản Việt Nam)에서 당연직 위원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리하여 럽 총비서가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짱 공안부 장관은 4명의 부위원장 중 한 자리, 응옥 사무국장과 닌 법무부 장관은 11명의 위원 중 각 한 자리씩에 앉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럽 총비서는 당내 비리 단속의 핵심 기구인 당중앙 감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시 자신의 동향 및 공안 출신 심복 부흥반(Vũ Hồng Văn)을 임명하였다. 반부패 사정의 칼을 여전히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도록, 혹은 적어도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하는 일은 없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렷 총비서가 공산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거나 그의 차기 총비서 선출이 때놓은 당상처럼 확정적이라고 아직 단언할 수는 없다. 우선, 서열 3위 팜민친(Phạm Minh Chính) 수상이 아직 건재하다. 스캔들도 많고 조기 실각설도 파다했던 그였지만 당 최고지도부를 하나하나 쓰러뜨린 숙청 폭풍우가 용케도 그만은 피해 갔다. 잡힌 약점이 많아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많지만(Hutt 2024), 당중앙 조직위원장 5년, 수상 4년을 거치면서 그가 보여준 정치역량, 특히 그의 끈질긴 생존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친 수상의 조직위원장 시절(2016~2020년) 그 아래에서 부위원장을 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응우옌타잉빈(Nguyễn Thanh Bình) 당시 상임부위원장이 하띤(Hà Tĩnh)성 출신, 호앙당꽁(Hoàng Đăng Quang)이 꽝빈(Quảng Bình)성 출신, 팜티타잉짜(Phạm Thị Thanh Trà) 현 내부무 장관이 응에안(Nghệ An)성 출신 등 다수가 친 수상 본인 출신 지인 타잉화(Thanh Hóa)성에 인접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속하는 지방 출신들이다. 만약 친 수상이 차기 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홍강델타 지역 흥옌성 출신이 주도하는 럽총비서 쪽과는 결을 달리하는, 북중부해안의 응에안-하띤 세력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3> 북중부 해안 지역



출처: Ramachandran et al 2009: 679

실제 응에안-하띤성 출신 세력은, 비록 거두급인 후에 전 국회의장이 불명예에 퇴진을 당하는 사태를 손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공산당 내에서 여전히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쯙 전 총비서 집권기 동안 몸집을 키웠다. 2000년대 제9기, 10기 중앙위원회에는 두 지역 출신 중앙위원이 합해서 10명 안팎에 그쳤는데, 지난 12기에는 두 배가 넘는 22명, 현 13기에는 무려 26명의 이 지역 출신 중앙위원이 포진해있다. 현재 14인으로 구성돼있는 13기 정치국에서도 이 두 지역 출신이 4명으로 최대 지역 파벌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당중앙 내정위원장, 감찰위원장, 조직위원장 등 중앙당 조직 관리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또럼 총비서가 공석을 모두 홍옌성 출신으로 채운 반부패위원회에서도 이들이 중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다. 판딘짱(Phan Đình Trạc) 내정위원장이 반부패위원회 상임 부위원장, 쩌끔뚜(Trần Cẩm Tú) 감찰위원장과 레민흥(Lê Minh Hưng) 조직위원장은 둘 다 부위원장 자리에 있다. 따라서 이들 응에안-하띤성 출신은 정치국과 반부패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또럼-홍옌 세력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당대회까지 아직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약 팜민친-응에안-하띤의 북중부 해안지역 연합전선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차기 총비서직의 최종 향방을 선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물론 현시점 럽 총비서가 압도적으로 차기 1순위이다. 쯙 전 총비서의 남은 잔여 임기 1년 포함 앞으로 또럼 총비서의 6년은 어떠한 모습일까? 도이며이 시대 베트남 정치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쯙의 시대가 폭풍우 몰아치는 정치 격랑과 함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나 앞으로 또럼이 열어갈 포스트-쯙 시대는 과연 어떠한 성격일지에 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언제나 그렇듯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을 되찾은 베트남 정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먼저, 바로 위의 분석에 이어, 차기 당대회까지 권력의 집중이 가속화될지 아니면 파벌 간 경합이 본격화될지가 포스트 쑹 시대를 규정할 한 가지 관건이 될 것이다. 총비서를 정점으로 한 흥옌성-공안 출신 파벌로 권력이 계속 집중된다면, 차기 당권의 향배도 이변 없이 럽 총비서로 귀결될 것이고 권력 집중 경향은 재집권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권력 집중의 수단은 럽 총비서가 공안부 장관 시절부터 전가의 보도로 사용해 온 반부패 사정일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반부패 투쟁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권력 집중 경향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계속된다면, 앞으로 베트남 정치체제는 점차 시진핑의 중국을 닮아갈 수도 있다. 현재 조성된 럽 총비서와 공안부의 위세를 감안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이 베트남 현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권력이 일인에게 집중되기보단 여럿에게 분산, 공유되는 시스템이고,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이 확고하기에 중국 같은 권력 집중 심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럽 총비서는 총비서로 선출되고 바로 국가주석직을 군부 출신 쯔영 장군에게 이양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권력 집중 경향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당 내외의 시선에 부담을 느꼈다는 말이다. 현 13기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의 구성도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권력을 잡은 총비서로 줄을 서는 편승이 일어날 수도, 반대로 총비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규합되면 그쪽으로 균형잡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파벌 간 경합이 벌어지면서 당대회 결과는 단언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 경우 설령 럽 총비서의 선출로 당대회가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파벌 간 견제와 균형은 차기 지도부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포스트 쑹 시대의 성격을 규정할 두 번째 차원은 또럼의 정책 방향

성, 구체적으로 쯩 전 총비서가 시작한 국가 부문 개혁의 지속 여부이다. 베트남공산당은 쯩 전 총비서의 영도 아래 당의 통치역량을 회복하고 정치 시스템의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당 건설 및 정돈(xây dựng Đảng, chỉnh đốn Đảng)’ 사업을 추진해왔다. 비록 지금까지는 부패인사 척결 투쟁만 주목을 받아왔지만, 당 건설 및 정돈 사업은 반부패 투쟁을 넘어 당 운영 제도화 및 조직 개편, 정부 조직혁신, 공무원 임금구조 전면 개편 등 광범위한 정치 및 행정 제도 건설을 포괄하는 정치 체계 혁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또렘 총비서가 이러한 기초를 이어서 정치 체계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또렘의 집권기는 내용상으로 ‘응우옌푸쯩 제4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 부문 개혁 노력을 접는다면 2000년대 지대추구가 만연했던 ‘응우옌뎐중(Nguyễn Tấn Dũng) 전 총리 시대로의 회귀’가 될 것이다.

굵직한 정책적 측면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럽 총비서의 행보는 ‘쯩 4기’로 향해있다. 당 조직과 정부 조직 통폐합의 구체적 방안과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면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중 시대로의 회귀’로 읽히기 쉬운 면들이 있다. 총비서 취임 직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의 범위와 속도는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든가, 남부 지방을 순회하며 응우옌뎐중 전 수상과 만나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 등이 그러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스트 쯩 시대 베트남 정치를 4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공산당 내 파벌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차기 지도부가 정치 체계 혁신 사업을 완성해가는 경우가 한 가지 가능성이다. 이것이 베트남의 향후 경제 발전 전망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다음 바람직한 경우는 비록 권력 집중은 심화하더라도 그것을 통

해 정치개혁 과제를 성공시켜 ‘효율적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적어도 중단기적 차원에서는 경제 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권력 집중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개혁이 중단되고 지대추구 시대로 회귀한다면 향후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 발전 전망은 밝지 않다. 지대추구 정치로 복귀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차라리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이다. 하나의 수직적 위계를 이룬 권력 중심이 단일 채널을 통해 질서 있는 지대추구를 하는 경우가 다중 권력 중심이 각자 협소한 이익집단을 형성해 서로 경쟁적으로 지대추구에 몰두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렘 총비서와 그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앞으로 베트남을 이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길로 이끌고 가게 될지 아직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Ⅲ. 외교: 정치 격랑 속 정중동의 베트남 외교정책

2023년은 베트남이 외교 전선에서 큰 점수를 딴 해였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9월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2월에 각각 하노이를 방문하며 미·중 양국으로부터 경쟁적 구애를 받는 베트남의 전략적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또한, 2022년 12월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격상을 시발점으로 2023년 9월에는 미국과 12월에는 일본과 CSP 관계 격상을 합의해내면서 1년 만에 한미일 3국 모두와 최고 단계로 관계를 격상하는 외교성적을 이루어냈다.

베트남은 2024년에도 그러한 기조를 이어 나갔다. 7월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하노이를 방문하면서 베트남은 1년 사이 미·중·러 정상회담이 모두 방문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또렘 총비서는 아직 국가주석을 겸직하던 8월에 총비서로서의 첫 외국 방문으로

북경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8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다시 가졌고, 한 달 뒤인 9월엔 뉴욕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1년 만에 두 번째 양국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CSP 관계 격상도 계속 추진되어 3월에는 호주와 10월에는 프랑스와 각각 격상에 합의하였고,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와도 관계 격상 논의를 이어 나가 2025년에 CSP 격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과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들(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을 포함해 총 10개국과 최고 수준 양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전 세계 강대국들 그리고 역내 모든 주요 중견국들을 ‘친구’로 만들겠다는 베트남의 외교 구상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3월에 국가주석, 7월에 총비서가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지만, 외교만큼은 기존의 방향과 정책이 중단 없이 유지, 계승되면서 뚜렷한 연속성을 나타냈다.

외교정책에 연속성이 두드러진 것은 분명 사실이나 새로움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먼저 또렘의 총비서 취임 후 8월 말 부이타잉선(Bùi Thanh Sơn) 외교부 장관이 부수상으로 승격되었다. 그 의미는 또렘 총비서가 9월 외교부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 자리에서 총비서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되는 평화롭고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외교가 “선봉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외교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고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총비서는 국방 강화와 안보 확립에 더해 이제 외교와 국제통합 증진 역시 “당의 중요하고 일상적인 임무”(nhiệm vụ trọng yếu, thường xuyên của Đảng)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Tô Lâm 2024). 이는 이제 외교를 국방과 안보와 동급의 중요성으로 보겠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하고 일상적인” 임무로서의

외교 개념은 제13차 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최종 외교정책 문서에 담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9월 열린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제14차 당대회 정치보고서 초안에 담기게 되었다. 이로써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 역할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겠다는 제13차 당대회 결의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실천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베트남공산당이 최근 이렇게 외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경제 발전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상호협조적인 대외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발전도 그러한 대외환경의 유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등 세계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급변하면서 편들기를 강요받게 되는 지정학적 단층에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여기서 자칫 외교적 실책을 범해서 누군가와 갈등적 관계로 빠져들고 그 때문에 결국 경제 발전 전망을 흐릿하게 될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천 킬로미터의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베트남으로서는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방적인 동해(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중국의 패권적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국방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온 베트남이지만 자칫 미국에 지나치게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중국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러·우 전쟁이 베트남에 준 교훈이 있다면, 강대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 완충국가가 적대 진영의 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상황은 베트남이 균형 잡힌 헤징 외교술을 최고 수준으로 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조성된 국면에서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베트남은 외

교에 선제적이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결국 양국이 서로 전략적 요충국가를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경쟁의 양상을 띠 수밖에 없고, 이를 잘 아는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구애를 최대한 활용해 자국의 경제와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베트남은 CSP로 관계 격상을 원했던 미국으로부터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 지원,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약속 등을 받아냈고, 자국 주도 “운명공동체”에 동참하길 바랐던 중국으로부터 인프라 투자 약속과 동해(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암묵적 자제의 태도를 끌어냈다. 외교적 고립 상태를 뚫어줄 연대의 손길이 절실했던 푸틴을 하노이로 초청한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도 석유 가스 시추 및 원자력 발전 관련 협력 약속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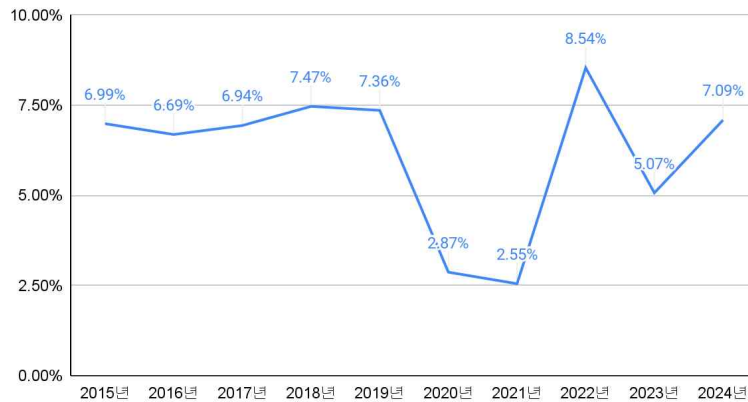
물론 베트남의 이러한 실용적, 전방위적 균형 외교가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 미국과 CSP로 두 단계 파격 격상을 만들어 낸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경제 지위 인정 검토를 요청했다. 이미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이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인정한 상황에서 CSP로 격상까지 한 미국이 이번엔 그러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겠느냐는 베트남 측의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8월 초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시장경제 리스트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발표한다.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무부 결정이 나온 때가 미국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던 푸틴의 하노이 방문이 감행된 지 겨우 한 달여 밖에 안 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어떤 국제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상무부 결정이 발표되기 바로 얼마 전 거행된 쯩 총비서의 장례식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도 그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Vu 2024). 베트남이 전방위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고 할 때 때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법이다.

남중국해 분쟁 관리도 2024년 하반기부터는 약간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공섬 구축에 맞서 베트남도 최근 몇 년 핵심 분쟁 지역인 쑤잉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 Spratly islands, 南沙群島) 내 자국 점유 섬, 암초, 환초를 매립하고 그곳에 활주로 등 인공시설을 건설하는 일에 열을 올려왔다. 특히 최근 그러한 활동이 급증했다. 2022년 한 해 매립 면적이 140헥타르, 2023년엔 164헥타르였는데,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280헥타르의 면적이 새로 매립되었다(Strangio 2024).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의 이러한 활동이 중국의 사실상의 목인 하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기간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는 스프래틀리 군도 내 해양지물인 세컨드 토마스(Second Thomas) 암초에 물자공급 작전을 수행하려는 필리핀 해군을 중국이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공격까지 가하면서 격렬하게 막아온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10월에 들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호양사 군도(Quần đảo Hoàng Sa, Paracel islands, 群島黃沙)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을 중국 측이 공격해와 선원 몇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자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중국을 특정하며 단호하고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조용하게 관리되던 영토분쟁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조짐이다. 이에 대해 한 분석가는 9월 미국을 방문한 럼 총비서의 외교 행보가 중국을 불만스럽게 만든 뒤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Strangio 2024b). 정확히 어떤 점이 중국의 불만을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방문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럼의 행보는 그가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다음의 발언을 한 것이다. “8월 혁명 중에 우리의 미국 친구들이 호치민 주석 옆에 서 있던 유일한 외국 세력이었고 그래서 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식 참석에 초대되었다.” 경쟁적으로 구애하는 양쪽 모두를 항상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IV. 경제: 정치 격랑 속 예상 밖의 깜짝 성장

2024년 베트남 경제는 부진을 벗어나 다시 고도성장 궤도로 복귀했다. 2025년 1월 통계총국이 발표한 연간 GDP 성장률 잠정치는 7.09%다(Hurong 2025). 지난해 5.07%에 비해 2%p 이상 높아진 수치이고 올해 목표 성장률 최고치보다도 0.59%p 초과한 수치이다.

<그림 4> GDP 성장률, 2015~2024년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지난해의 어려움은 대내외 소비 부진에 기인했다. 바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소비심리 회복이 지체되며 수출이 부진했고, 안에서는 반부패 투쟁이 격화하여 공공 투자를 지체시켰다. 그나마 탄탄했던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바닥에서 떠받쳤다. 경기 부진 전망은 2024년 1/4분기까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정치국원 연쇄 사임에 따른 정국 불안정이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정국 불안은 경제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보궐 및 보임으로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는 기존의 관행대로

정책을 운용했다. 준수한 거시경제 관리를 지속하며 대내 경제여건을 안정시켰다. 무역과 투자의 개방성도 유지했다.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정책 운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풍 야기 이후로는 수해 복구를 위한 공공투자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대외여건이 개선되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고속 성장의 경로로 재차 합류할 수 있었다.

연초부터 시작된 수출, 해외직접투자, 해외여행객 유입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가 성장 우선주의를 암시하며 공공 투자 집행을 가속했다. 이 같은 대내외 소비 확장 덕분에 베트남은 7%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제는 COVID-19 시기의 그림자에서 확실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경기 부진 때문에 15개 사회경제지표 목표치 중 5개를 달성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달랐다. 이미 10월 21일, 친 수상은 2024년 15개 지표 중 14개를 초과 달성했다는 내용을 제 15대 국회 8차 임시회의에서 발표했다(TTXVN[베트남통신사] 2024). 아직 정부의 사회경제지표 목표 달성 보고를 국회가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래서 2025년 1월 현재 관계기관이 발표한 잠정 수치를 수집하여 기재한다.

<표 1> 사회경제지표 성과

| | 지표 | 2023년 성과* (국회 승인) | 2024년 목표 (국회 승인) | 2024년 성과 (소관 기관 추계) | 달성 여부 |
|---|--------------------|-------------------------|------------------------|------------------------|----------|
| 1 | GDP 성장률 | 5.05% | 6.0 ~ 6.5% | 7.09%** | 초과 달성 |
| 2 | 1인당 GDP | USD 4,284 | 약 USD 4,700 ~ 4,730 | 약 USD 4,700** | 달성 |
| 3 | GDP 중 제조가공업 비중 | 23.88% | 24.1 ~ 24.2% | 24.1%*** | 달성 |
| 4 | 연평균 물가 상승률(CPI) | 3.25% | 4.0 ~ 4.5 | 3.63%** | 초과 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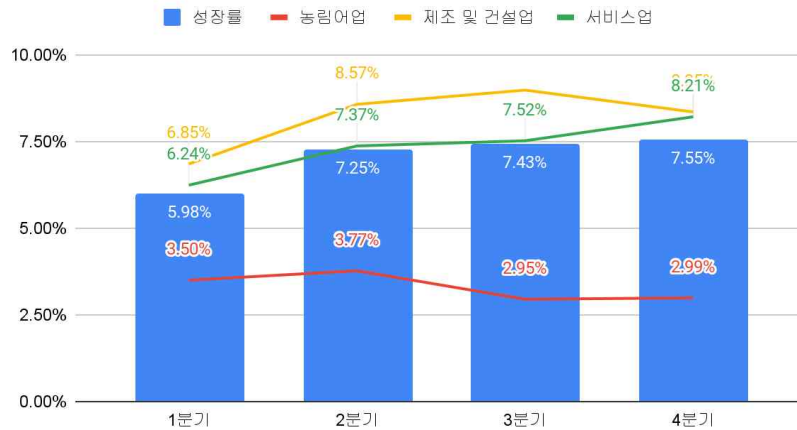
| | | | | | |
|----|--------------------------------|---------------|-----------------------|-------------------------|----------|
| 5 | 노동생산성 평균 증가율 | 3.65% | 4.8 ~ 5.3% | 5.88%** | 초과 달성 |
| 6 | 농업노동자 비중 | 26.9% | 26.5% | 26%** | 초과 달성 |
| 7 | 숙련노동자 비중 (학위 자격증 취득자 비중) | 68% (27%) | 69% (28.0 ~ 28.5%) | 69%****, (28.3%)** | 달성 |
| 8 | 도시지역 실업률 | 2.73% | 4% 미만 | 2.37%** | 초과 달성 |
| 9 | 빈곤가구 감소율 | 1% 포인 트 감소 | 1% 포인트 이상 감축 | 1% 포인트 감소** | 달성 |
| 10 | 인구 1만명 당 의사 수 | 12.5명 | 13.5명 | 14명 ***** | 초과 달성 |
| 11 | 인구 1만명 당 병상 수 | 32개 | 32.5개 | 34개 ***** | 초과 달성 |
| 12 | 의료보험 가입자 비중 | 93.35% | 94.1% | 94.1% ***** | 달성 |
| 13 | 새농촌 표준 달성 마을 수 | 78% | 80% | 78.7% ***** | 미달성 |
| 14 | 도시고형폐기물의 표준적 수집처리율 | 95% | 95% | (올해 목표치가 작년 달성치와 동일) | 달성 |
| 15 | 중앙집중식 하수 처리장을 갖춘 산업공단 비중 | 92% | 92% | (올해 목표치가 작년 달성치와 동일) | 달성 |

* (Nhi 2024), **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 (Hà 2025), ****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Bộ Lao động-Thương binh và Xã hội [노동보훈사회부] 2024), ***** (Cổng thông tin Bộ Y tế [보건부] 2024), *****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농업 및 농촌개발부] 2024)

출처: 위 출전을 조합하여 저자 작성.

2024년 7.09% 성장을 선도한 부문은 제조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이다. 제조 및 건설업부터 살펴보면, 건설업의 기여보다는 제조업의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은 반부패 사정 정국의 여파로 인해 아직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제조업은 탄탄한 대외수요에 기반하여 크게 확장했다.

<그림 5> 분기별 부문 GDP 성장률, 2024년 1분기~4분기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서비스업은 연중 내내 성장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명실상 부한 성장의 엔진이 되었다. 세부 산업분류로 들어가면, 운송 서비스업과 여행접객업의 성장세가 도드라진다. 운송 서비스업 확장의 배경엔 화물과 여객 수요 확장이 있었다(Tổng cục Thống kê[통계총국] 2024). 올해 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6억 7,060만 톤을 기록했다. 여객 운송실적은 전년 대비 8.3% 증가하여 50억 6,760만 명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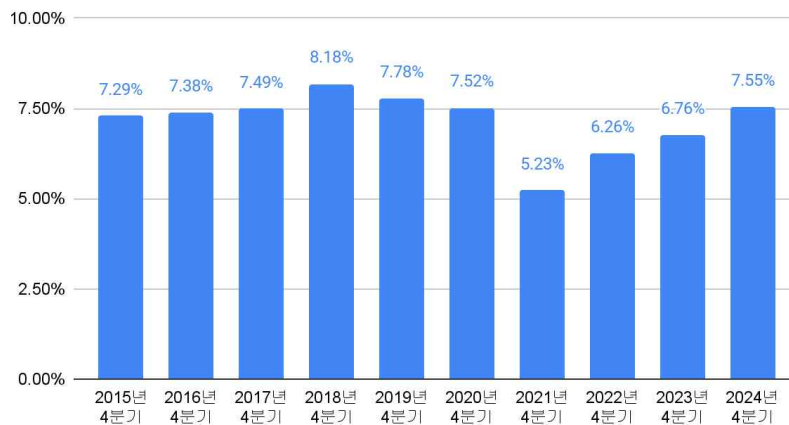
여행접객업의 경우 선진산업국 소비심리 회복과 여행비자 체류일수 확대에 따른 해외여행객 유입 증가로 수혜를 입었다. 참고로 베트남의 해외여행객 운송실적은 작년 대비 20.9%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의 97.3%에 육박하는 1,580만 명을 기록했다(Vietcap IQ 2024). 해외 여객운송 매출액은 팬데믹 직전 대비 111.3%를 기록했다(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COVID-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관련 업종이 이제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농림어업의 수축은 산업재편의 구조적 흐름과 더불어, 지난 8월

홍강 델타지역과 북부산간에 막대한 피해를 준 슈퍼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Tổng cục Thống kê[통계총국] 2024).

위의 <그림 2>를 보면 2024년 분기별 성장률이 4분기로 갈수록 오른다. 사실 분기별 성장률 우상향 패턴은 거의 모든 해에 나타난다. 선진산업국 제조품 수요와 내국 공공부문 투자가 연말로 갈수록 확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그 우상향 패턴이 일률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림 6> 매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 2015년~2024년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7.55%는, 2018년 4분기 성장률 8.18%에 비견할 수 있다. 2018년은 연간 성장률이 7.47%로 높았던 해다. 4분기 성장률이 높다면 연간 성장률도 당연히 높아야 할 듯 하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연간 성장률과 4분기 성장률이 괴리되는 해도 있었다. 가령 2022년에는 연간 성장률이 가장 높은 8.54%에 달했지만 4분기 성장률은 6.2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유는 선진산업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수요 감소였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는 팬데믹 시기 완화적 대응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다고 판단하고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포스트 팬데믹 긴축이 선진국의 연말연시 소비심리를 냉각시켜 당시 베트남의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요컨대 4분기 성장률은 성장률의 대외수요 기여분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다.

2018년과 2024년의 공통점은 이른바 공급망 선행주문(supply chain pull-forward)에 따른 대미수출 급증이다(Kokalari 2024; Giang 2024).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천명한 관세 인상안이 6월부터 현실화하자, 미국 제조 및 유통업계는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아시아 수출제조업자에게 기록적인 규모의 선행주문을 냈었다(LaRocco 2024). 2024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보편관세’를 내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업계는 첨단 소매용 전자제품과 부품을 중심으로 부랴부랴 선행주문을 내기 시작했다. 코칼라리(Michael Kokalari)는 선행주문으로 2024년 베트남의 대미수출이 40% 급증했다고 잠정 추정했다(Kokalari 2024). 그러한 선행주문이 올해 3, 4분기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떠받쳤다. 다만 선행주문은 향후 경기에는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다. 미국 업계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문을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흥미롭게도, 대규모 선행주문이 수출실적을 끌어올렸던 두 해에, 수출액 기준 상위 제품군 목록 순서가 다르다. 그 사이 컴퓨터 및 부품, 그리고 기계 장비·도구·부품은 2-3배 넘게 확장하며 순위를 올렸다. 이 두 부문은 의류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품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베트남의 제조업 고도화 성과를 보여준다.

<표 2> 수출액 기준 상위 5대 상품군, 2018년,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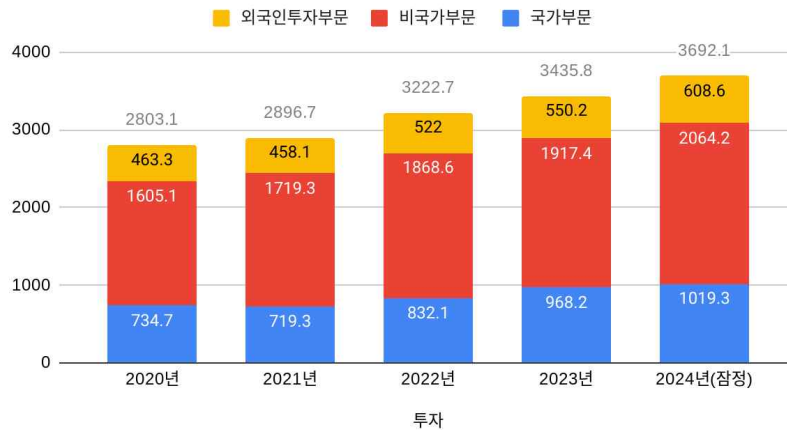
| | 2018년 | | 2024년 | |
|----|-----------------|---------|-----------------|---------|
| | 수출품목 | 수출액 | 수출품목 | 수출액 |
| 1위 | 휴대폰 및 부품 | 500억 달러 | 컴퓨터 및 부품 | 762억 달러 |
| 2위 | 섬유 및 의류 | 304억 달러 | 휴대폰 및 부품 | 539억 달러 |
| 3위 | 컴퓨터 및 부품 | 294억 달러 | 기계 장비, 도구, 예비부품 | 521억 달러 |
| 4위 | 기계 장비, 도구, 예비부품 | 165억 달러 | 섬유 및 의류 | 370억 달러 |
| 5위 | 신발 | 163억 달러 | 신발 | 299억 달러 |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18;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흔히 2016년 이후 반부패 사정으로 공안통의 장악력이 확대되고 기술관료가 힘을 잃었다고 말한다. 바로 그 때문에 베트남이 경제 발전에 있어 기회비용을 치렀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하지만 통념과 달리 베트남은 이른바 ‘공안 정권’에서도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물론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추세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첫째는 고용 감소 가능성이고 둘째는 외국자본 의존도다. 의류와 신발 제조업은 고용창출력이 월등하다. 두 부문의 상대적 쇠퇴는 고용 성과에 부정적일 수 있다. 아직은 의류 및 신발 산업이 팽창하고는 있지만, 이미 다른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과급되는 임금인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술집약적인 제조업일수록 외국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고도화된 제조업에 내국 자본의 기여를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

2024년 투자액은 2023년 대비 7.5%가 증가한 3,692.1조 동에 이르렀다. 증가분의 57%는 비국가 부문, 23%는 외국인 투자 부문이 차지한다. 내외국 민간부문이 투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이다. 참고로 2023년에는 내외국 민간부문이 부진했던 나머지 전체 투자액 증가분 중 64%를 국가 부문 투자액이 차지했었다.

<그림 7> 투자액(조동, 202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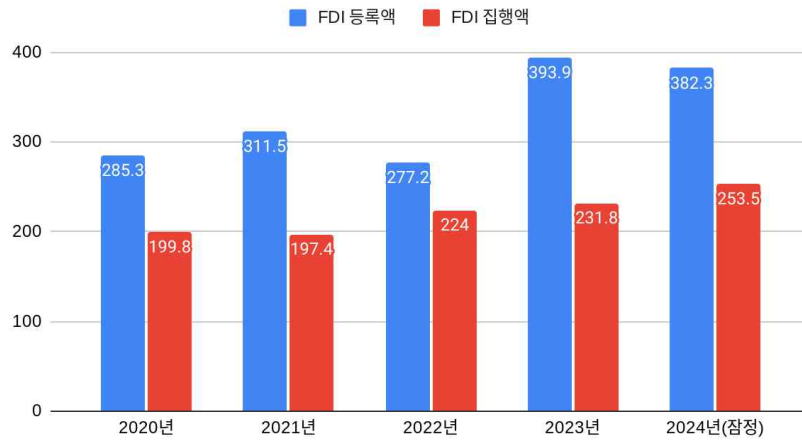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국가 부문 투자액 1019.3조 동 중에서 국가 예산은 661.3조 동이다. 이 액수는 국가예산안 예산액의 84.6%에 해당한다. 집행률이 84.6%에 불과했던 것이다. 집행률에는 과목별 격차가 있다. 2024년 11월 기준, 경상비 집행률은 83.8%에 달했던 반면, 투자개발비 집행률은 60.7%밖에 되지 않았다(Vietcap IQ 2024). 연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투자개발비 집행액은 작년 대비 8.7% 감소했다. 공공 투자의 부진은 반부패 사정 국면에 따른 공직자 복지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총비서가 보궐된 4분기 이후로는 투자개발비 집행에 가속이 붙었다는 관측이 있다. 예를 들어, 11월 국가 예산 투자개발비 집행액은 55.4조 동에 달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Vietcap IQ 2024).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은 382.3억 달러로, 작년 대비 3% 감소했다. 이 중 신규 등록 3,375건 197.3억 달러, 조정 등록은 1,539건 139.6억 달러다. 나머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출자 및 주식매수 등기액이다.

<그림 8> 외국인직접투자 추세(억 달러, 2020년~2024년)



출처: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24.

국가별로 보자면, 신규 등록건 중 가장 큰 투자자는 싱가포르로, 62.6억 달러를 등록했다. 그다음 한국 28.6억 달러, 중국 28.4억 달러, 홍콩 21.7억 달러 순이다. 부문별로 보자면, 신규 및 조정 등록을 합산했을 때, 가공제조업이 246.8억 달러로 73.3%를 차지한다. 2024년 신규 등록 대부분은 반도체, 전력 생산 등 에너지, 전자제품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자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Nhan Dan 2025).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으로 50.9억 달러로 15.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자면, 박닌(Bắc Ninh)성이 51.2억 달러, 하이퐁(Hải Phòng)시가 49.4억 달러, 호치민시가 30.4억 달러 순서다(Nhan Dan 2025).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은 현상 유지에 그쳤지만,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지출은 253.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공제조업이 81.4%, 부동산개발업이 7.2%, 에너지 및 공조업이 4.2%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과는 베트남의 입지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른바 ‘대나무 외교’가 경제적으로 효과적이

라는 것을 함축한다. 베트남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국 국빈 방문 순서 등 외교적 신호를 정교하게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주요 선진산업국과 양자관계를 연쇄적으로 강화해왔다. 외국과의 정치적 연루 위험은 줄이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실제로도 효과적이어서, 베트남은 미·중 경쟁에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공급망을 이용하고도 미국의 대중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그래서 중국 내 공급망에 의존적인 초국적기업이라면, 생산 설비를 중국 바깥으로 빼내려 할 때, 베트남이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 폭스콘(Foxconn) 등 전자제품위탁제조업종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이를 웅변한다.

물론 외교 전략의 효과가 아니더라도 투자지로서 베트남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동일 인건비 수준에서 베트남만큼 입지가 좋은 국가는 없다. 동으로는 태평양 서안의 주요 해상 항행로에 근접해있으면서도, 북으로는 중국 남부 공급망에 육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치안, 풍부한 노동력, 물적 사회기반시설,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파견근무자 정주 여건 등 조건도 잘 갖추고 있다.

요약하면, 베트남은 2024년 한 해 동안 정치적 난기류를 겪었지만, 그로 인한 혼란이 경제정책 영역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이 보여준 베트남에 대한 신뢰가 그 방증이다.

지금까지 경제 분야에서 베트남의 2024년을 살펴보았다. 고도성장의 불씨를 다시 당겼던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운용과 호의적인 대외여건이었다. 수출과 투자의 호조로 경제성과가 향상되었다. 양적인 성과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보였는데, 수출 품목의 변화는 제조업 고도화를 보여주었다.

화려한 성과를 옆으로 밀어 보면 배후의 문제가 보인다. 첫째, 사회기반시설 공급 부적정 문제다. 전력, 용수, 하수처리시설,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 해결 방법은 공공의 투자 또는 민관 협력 투자다. 하지만 반부패 사업이 거의 10년째 이어지면서, 공공 참여 투자는 모두 지체되고 있다. 2024년 국가 예산 투자개발비 집행률이 겨우 60%대에 머물렀던 것이 그 증거다.

둘째, 대외 의존성이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양상이 있다. 하나는 베트남이 경제성장을 제조품 수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포스트 팬데믹 긴축이 시작된 2022년처럼 대외 수요가 감소하면 수출이 부진해져 경제성장이 어렵다. 주요 수출시장의 정치적 변화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시아 주요 수출국가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산 수출 제조품 대부분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만든다는 것이다. 2018년과 2024년 같이 대외 수요가 오름세인 경우를 보면, 수출이 활황에 돌입해도 베트남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세공과금과 노동 소득에 한정된다. 수출에서 벌어들인 자본소득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으로 돌아간다. 자본소득의 용처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결정한다. 선택지는 유보, 증자, 재투자, 송금, 청산과 같은 합법적 선택지부터 이전가격을 통한 소득 국외 이전과 같은 비합법적 선택지까지 아우른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조력할 만한 재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베트남으로서는 호경기가 산업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셋째, 제도의 질 문제가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최빈국에서 출발해 혼합경제 중진국(A mixed economy at the middle-income level)으로 발달한 매우 드문 경로를 거쳤다. 그 경로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불비성, 모호성, 복잡성, 상충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제도는 외려 스스로가 불확실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경제 행위자는 제도 ‘때문에’ 생겨난 불확실성을 떠안은 채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른바 ‘기름칠’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었다. 지금은 그마저 쉽지 않은데, 반부패 드라이브의 영향이 기업과 정부, 심지어 당 정치국에까지 번져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도의 질이 충분히 향상된 것도 아니어서, 앞 단락에서 전술한 대로, 공공부문이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일은 마비 상태에 빠져있다.

사회기반시설 공급 부적정 문제는 지도부가 목표를 공언하고 관련 사무를 밀착 감독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실제 2023년 불거진 전력난은 친 수상이 우격다짐 식으로 관련 사무를 직접 챙긴 끝에 1년여 만에 해결을 보았다. 또 럽 총비서는 과거에 좌초했던 초대형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북남고속철도 사업과 닌투언(Ninh Thuận)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설비 사업 재개를 선언했다. 일부 경제계 관찰자들은 럽 총비서 취임 이래 인허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고했다(Kokalari 2024).

하지만 그런 식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단편적 해법에 불과하다. 지도부의 주의력은 한정되어 있다. 밀착 감독의 효과성은 한계 체감한다. 근본적 해법은, 첫째, 충분한 재정 동원, 둘째,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있어 공공 투자와 건전한 민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s) 구축이다.

베트남은 대외수요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두 국가에 대외수요를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진산업국과 양자관계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아무리 다변화해도 대외수요에 의존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지라 근원적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베트남은 생산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의존도가 높은 나머지 동태적 비교우

위 확보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류·봉제와 신발 부문의 직접투자는 억제하면서 첨단 산업 직접투자는 환영하는 식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친수상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반도체 기업 유치를 추진했던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한 측면이다. 하지만 아무리 고부가가치 부문이라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라는 점은 매한가지라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대의 의존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생산과 소비에서 내국 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총비서(Nam 2024), 수상(Khuyên 2024) 등 이른바 4대 기둥에 속하는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서 민간 대기업을 독려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럽 총비서는 2022년부터 전개된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투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Tatarski 2024). 하지만 독려만으로 민간기업을 성장시킬 수는 없다. 민간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려면 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평 경쟁의 장을 비롯한 일련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결국 모든 근원적 해결책은 수준 높은 제도 건설로 수렴한다. 어떻게 제도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일단 하반기에 출범한 럽 지도부는 종전 총비서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공공부문 개혁을 그 출발점으로 잡은 듯하다. 2024년 7월에 단행된 공공부문 급여 대폭 인상 조치는, 낮은 급여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4년 12월에 발표된 이른바 럽 총비서의 정치제도 간소화 계획, 이른바 “새 시대의 과업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고방식과 조직체제의 혁명(cách mạng về tư duy, cách mạng về tổ chức bộ máy để đáp ứng yêu cầu nhiệm vụ giai đoạn mới)”은 ‘병목 중의 병목’인 방만한 당 국가 기구를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과잉 고용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Hiệp 2024). 이 계획의 놀라운 점은 단 6개월 만에 중앙부처 및 당 조직 통폐합과 잉여 인력 감축을 해낼 거라 장담한다는 점이다. 지금으로

서는 실행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정치적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만약 럽 총비서가 공언한 바의 ‘제도 혁명’을 해낸다면, 2024년과 2025년은 베트남이 안정적 고도성장의 문을 열어젖힌 해로 기록될 것이다.

V. 결론

베트남의 2024년은 정치 격변, 외교 일관, 경제 상승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치 격변의 폭은 넓었고 심도도 깊었다. 도이머이 이래 베트남 관찰자들이 만들어 온 정치적 관행, 정치적 금기의 목록을 전면 개정해야 할 정도였다. 쑹 전 총비서 서거 이후 정치 격변은 마치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빠르게 진정되었다. 배후에 모종의 권력투쟁이 작동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의외로 정치 격변은 외교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치국의 1/3이 교체되었지만, 두 영역의 정책 기조는 현상을 유지했다. 국내 정치 현안이 남의 일에 불과했을 외교 상대국과 경제 행위자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베트남 고위 정치인은 아마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이었을 권력투쟁 상황에서도 어떤 '선'을 넘지는 않았다. 덕분에 베트남은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호기를 활용하여 경제성과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외교와 경제는 안정적이었지만, 정치 격변이 몰고 온 먼지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 여름이 되어야 제14차 당대회이 대강이 나오고 럽 총비서의 당 국가 간소화 개혁의 성패가 드러난다. 그때쯤에는 포스트 쑹 시대의 설계도를 또렷이 보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Chính, Gia. 2024. “Cảnh báo 'tím' lan rộng các tỉnh phía Bắc sau bão Yagi[태풍 야기가 지나간 자리에 자색 경보 확산].” *VnExpress*. September 9. <https://vnexpress.net/canh-bao-tim-lan-rong-cac-tinh-phia-bac-sau-bao-yagi-4790448.html> (검색일: 2025/02/03)
- Cổng thông tin Bộ Y tế [보건부]. 2024. “Năm 2024 ngành Y tế đạt được 8 kết quả nổi bật, cơ bản hoàn thành các chỉ tiêu lớn được Chính phủ giao - Hoạt động của lãnh đạo bộ - [보건부,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정부 할당 주요 목표를 완료함으로써 8가지 뛰어난 성과를 달성할 것].” December 24. https://moh.gov.vn/hoat-dong-cua-lanh-dao-bo/-/asset_publisher/TW6LTp1ZtwaN/content/nam-2024-nganh-y-te-at-uoc-8-ket-qua-noi-bat-co-ban-hoan-thanh-cac-chi-tieu-lon-uoc-chinh-phu-giao. (검색일: 2025/01/29)
-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Bộ Lao động-Thương binh và Xã hội [노동보훈사회부]. 2024. “Năm 2024: Thị trường lao động phục hồi nhanh, mạnh mẽ[2024년에 노동시장은 빠르고 강하게 회복].” December 31. <https://molisa.gov.vn/baiviet/242702>. (검색일: 2025/01/29)
-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농업 및 농촌개발부]. 2024. “Thủ Tướng Phạm Minh Chính Tin Tưởng Ngành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Sẽ đạt Mục Tiêu Tăng Trưởng 3,5-4% Trong Năm 2025[팜 민 쩌 총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가 2025년에는 3.5 ~ 4% 성장 목표를 달성할 거라 확인].” December 28. <https://www.mard.gov.vn/Pages/thu-tuong-pham-minh-chinh-tin-tuong-nganh-nong-nghiep-va-phat-trien-nong-thon-se-dat-muc-tieu-tang-.aspx>. (검색일: 2025/01/29)

- Hà T. Ô. 2025. “Phấn đấu tăng trưởng kinh tế ở mức hai con số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 *Báo Nhân Dân điện tử*[인민보]. January 2. <https://nhandan.vn/post-853809.html>. (검색일: 2025/01/29)
- Hiệp, Lê. 2024. “Tổng Bí thư: Tinh gọn bộ máy là vấn đề rất khó, phải thận trọng, dân chủ[총비서: 기구 정비는 매우 어려운 문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Báo Thanh niên*[청년보]. December 16. <https://thanhvien.vn/tong-bi-thu-tinh-gon-bo-may-la-van-de-rat-kho-phai-than-trong-dan-chu-18524121615554864.htm> (검색일: 2025/02/03)
- Hường, Thu. 2025. “Tổng cục Thống kê họp báo công bố số liệu thống kê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quý IV và cả năm 2024 [통계총국, 2024년 4분기 및 연간 사회경제 상황 통계를 발표하며 간담회를 열 어].” *Tạp chí Con số & Sự kiện*[수치와 사건 잡지]. January 6. <http://consosukien.vn/tong-cuc-thong-ke-hop-bao-cong-bo-so-lieu-thong-ke-tinh-hinh-kinh-te-xa-hoi-quy-iv-va-ca-nam-2024.htm>. (검색일: 2025/01/29)
- Khuyên Vũ. 2024. “Lần đầu tiên Thường trực Chính phủ làm việc với các doanh nghiệp tư nhân lớn [처음으로 정부와 사유대기업이 협력].” *Báo Điện tử VOV*. September 21. <https://vov.vn/chinh-tri/lan-dau-tien-thuong-truc-chinh-phu-lam-viec-voi-cac-doanh-nghiep-tu-nhan-lon-post1122962.vov>. (검색일: 2025/01/29)
- Kim, Hà. 2024. “Hình ảnh đoàn ô tô che gió bão cho người đi xe máy trên cầu Nhật Tân[넛 떤 교에서 폭풍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보호하는 자동차 호송대 사진].” *Báo Công lý*[정의보]. September 7. <https://congly.vn/hinh-anh-doan-o-to-che-gio-bao-cho-nguoi-di>

xe-may-tren-cau-nhat-tan-447076.html (검색일: 2025/02/03)

Nam Hoài. 2024. “Tổng Bí thư, Chủ tịch nước Tô Lâm gặp mặt đại biểu doanh nhân tiêu biểu [포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 기업 대표단을 만나].” *Vietnam Plus*. October 11. <https://www.vietnamplus.vn/tong-bi-thu-chu-tich-nuoc-to-lam-gap-mat-dai-bieu-doanh-nhan-tieu-bieu-post982752.vnp>. (검색일: 2025/01/29)

Nhi An. 2024. “Năm 2023, toàn bộ các chỉ tiêu về xã hội đều đạt và vượt mục tiêu đề ra [2023년에 모든 사회지표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할 것].” *Tạp chí Kinh tế và Dự báo*[경제와 예측]. January 5. <https://kinhtevadubao.vn/nam-2023-toan-bo-cac-chi-tieu-ve-xa-hoi-deu-dat-va-vuot-muc-tieu-de-ra-27969.html>. (검색일: 2025/01/29)

Tô Lâm. 2024. “Đổi ngoại đảng đóng góp quan trọng và thể hiện vai trò là trọng yếu, thường xuyên để hoàn thành những trọng trách vinh quang trong kỷ nguyên mới.[당의 대외관계는 중요한 기여를 하며, 새시대의 영광스러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요하고 일상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Tạp chí Công sản* [공산잡지]. October 28. https://www.tapchiconsan.org.vn/web/guest/tin-tieu-diem/-/asset_publisher/s5L7xhQiJeKe/content/trong-ky-nguyen-moi-ky-nguyen-vuon-minh-cua-dan-toc-doi-ngoai-dang-phai-phat-huy-cao-do-truyen-thong-ve-vang-vuon-len-nhung-tam-cao-moi-de-hoan-thanh-?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02/03)

Tổng cục Thống kê [통계총국]. 2018. “Báo Cáo Tình Hình Kinh Tế - Xã Hội Quý IV và Năm 2018 [2018년 4분기 및 연간 사회경제상황 보고].” <https://www.gso.gov.vn/du-lieu-va-so-lieu-thong-ke/2019/04/thong-cao-bao-chi-ve-tinh-hinh-kinh-te-xa-hoi-quy-iv->

va-nam-2018/. (검색일: 2025/01/29)

_____. 2024. “Báo Cáo Tình Hình Kinh Tế Xã Hội Hàng Tháng [월별 사회경제상황 보고].” <https://www.gso.gov.vn/bao-cao-tinh-hinh-kinh-te-xa-hoi-hang-thang/>. (검색일: 2025/01/29)

TTXVN[베트남통신사]. 2024. “Toàn văn Báo cáo tóm tắt kết quả thực hiện kế hoạch phát triển KT-XH năm 2024, dự kiến kế hoạch phát triển KT-XH năm 2025 [2024년 사회경제발전계획 시행결과 요약보고서 전문과 2025년 사회경제발전계획 예상안].” *Báo Tin tức*[소식보]. October 21. <https://baotintuc.vn/thoi-su/toan-van-bao-cao-tom-tat-ket-qua-thuc-hien-ke-hoach-phat-trien-ktxh-nam-2024-du-kien-ke-hoach-phat-trien-ktxh-nam-2025-20241021122953110.htm>. (검색일: 2025/01/29)

Giang, Nguyen Khac. 2024. “Vietnam, China and Rerouting: When Perceptions Matter as Much as Reality.” *FULCRUM*. November 26. <https://fulcrum.sg/vietnam-china-and-rerouting-when-perceptions-matter-as-much-as-reality/>. (검색일: 2025/01/29)

Hutt, David. 2024. “The Eighteenth Brumaire of To Lam.” *The Diplomat* August 23.

Kokalari, Michael. 2024. “Looking Ahead at 2025.” VinaCapital.

LaRocco, Lori Ann. 2024. “A Double Whammy of Tariffs and Strikes Is Coming for U.S. Trade and the Global Supply Chain in Early 2025.” *CNBC*. November 19. <https://www.cnbc.com/2024/11/19/trump-tariffs-new-port-strikes-shippers-on-edge.html>. (검색일: 2025/01/29)

Nhan Dan. 2025/01/06. “Vietnam Achieves Record FDI Disbursement in 2024.” *Nhan Dan Online* (english). <https://en.nhandan.vn/post-143065.html>. (검색일: 2025/01/29)

- Ramachandran, Leela and Steffanie Scott. 2009. "Single-Player Universities in the South: The Role of University Actors in Development in Vietnam's North Central Coast Region." *Regional Studies* 43(5): 697.
- Strangio, Sebastian. 2024a. "Vietnam on Record Pace for Spratly Island Construction in 2024, Report Says." *The Diplomat*. June 12.
- _____. 2024b. "Vietnam Protests 'Brutal' Chinese Attack on Fishermen in Parcel Islands." *The Diplomat*. October 3.
- Tatarski, Michael. 2024. "The Year in Vietnamese Politics." *Vietnam Weekly*. December 16, 2024. <https://thevietnamweekly.substack.com/p/the-year-in-vietnamese-politics>. (검색일: 2025/01/29)
- Vietcap IQ. 2024. "Macro Update December 2024 - Public Investment Disbursement Signals Acceleration." Vietcap.
- Vu, Khang. 2024. "Why the US Could Regret Not Lifting Vietnam's 'Non-Market Economy' Status." *The Diplomat*. August 5.

(2025.01.10. 투고, 2025.01.23. 심사, 2025.02.10. 게재 확정)

<Abstract>

Vietnam in 2024: An Economy Navigating Smoothly Amid Political Turbulence

Yong Kyun KIM · Jaeseok M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24, Vietnam was embroiled in political uncertainty. Six Politburo members, including the General Secretary, vacated their positions and were replaced within the first six months. The intensifying power struggles appeared to dismantle many political norms and taboos that had been maintained since the Đổi Mới era. Many Vietnam watchers expressed concerns about political instability and sudden policy discontinuity. Looking back now, those concerns seem to have been exaggerated. Despite the political upheaval, Vietnam maintained continuity in other areas. In diplomacy, Vietnam continued its pragmatic “bamboo diplomacy,” upgrading bilateral relations with key middle powers and securing concessions from several major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economic front, Vietnam exceeded its annual targets, driven by robust exports and investment flows, thanks to the country's commitment to ensuring predictability for economic actors. However, the political landscape remains fluid. The ultimate outcomes of the political drama that swept through 2024 remain unclear. By the summer of 2025, the framework for the 14th Party Congress will likely take shape,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General Secretary Lâm's “institutional reforms” will become evident. By then, the dust will settle, and the blueprint for the post-Trọng era will be revealed.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arrangements that emerge at that time will define Vietnam's trajectory for the next six years.

Key Words: Vietnam, 2024, Political Drama, Bamboo Diplomacy, Economic Growth, Institutional Reform